

GA 급성장… 독립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논의 본격화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사 대리인 지위 논란 속
독립 금융회사 격상 논의 활발

수수료 협상권·1차 배상책임
소비자·정보보호 등이 관건

복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커지면서 대리인 지위를 넘어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판매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과 감독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수수료 협상 구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GA는 설계사 수와 초회보험료 비중 등에서 전속채널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약 29만명에 달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18만 명)의 1.5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전체 보험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3%에 이르렀다.



Chat GPT가 생성한 법인보험대리점 GA 이미지.

다만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묶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A가 실질적 판매·관리를 수행하는 독립적 금융회사로 전환돼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약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이뤄

진다면 GA는 보험사와 수수료율·사업비·보험료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가 전제된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전

문성·자율성 제고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수료 협상 구조 변화는 중소 보험사의 협상력 약화, 사업비·보험료 인상 압력,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이슈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채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수료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며 “GA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 역시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협상권과 1차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GA부터의 단계적 전환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뤄지도록 금

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단순 계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고지·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박지원 연구위원은 “GA는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고, 수수료율 협상력 확보, 고객관리의 고도화, 수익원 다변화 등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로 정립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정비, 자본 요건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불완전판매 발생 시 1차 배상책임 부여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매채널이 실질적인 1차 배상책임을 이행하려면 배상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체계 정비와 함께 감독기관의 사후 점검 체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3.8조 부실채권 정리나선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 주력

작년 최대 손실실에 연체율도 비상
건전성 제고 위해 대손충당금 확대
새 부실채권 매각채널도 발굴 나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3조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2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부실채권 매각은 연체율 관리 차원이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에만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바 있다. 대손충당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부실채권 매각채널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작년 9월 ‘유암코-MG PF정상화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 있다. 현재 펀드 누적 투자 약정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적 부진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때문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전년도 기준 1조7832억원의 역대 최대 손실실을 기록한 바 있다.

연체율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새마

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2.10%에서 2021년 1.93%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2년 말 3.59%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2023년 5.07%, 2024년 6.81%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경영환경과 대규모 부실채권 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분간 손실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 건전성 제고 조치와 지속적인 경영 혁신 노력이 이어진다면 내년부터는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손실이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역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과 PF사업장 정리로 향후 1~2년 간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위기 극복을 위한 체질개선과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까지 금소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한은행 장기거래 고객 대상 머니쿠폰 등 이벤트

신한은행이 10년 이상 꾸준히 거래한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신한 장기거래 고객 동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먼저, 9월 1일부터 장기 거래고객에게 최대 연 7% 금리의 ‘모두의 적금’ 가입 시 사용 가능한 1만원 머니쿠폰을 제공하며 쿠폰은 ‘신한 SOL뱅크’에서 수령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9월 29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열리는 ‘화담숲에서 걸어요’ 행사에 만 50세 이상 우수 장기거래 고객을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신한은행과 화담숲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관 행사로, 9월 15일까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화담숲 전관행사 초대권을 제공하고 당첨자는 9월 18일 개별 알람톡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가을 분양 큰장 선다… 3만여 가구 공급

수도권 1.8만세대 지방 1.2만세대
6·27 대출 규제에 자금부담 변수

9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 ‘분양대전(大戰)’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연가된 단지까지 합쳐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약 47% 증가할 전망이다.

1일 직방에 따르면 9월에는 전국서 총 3만42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달(2만450세대) 대비 47% 늘어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만 따로 보면 1만9753세대로, 전년 동월(1만2821세대)보다 54%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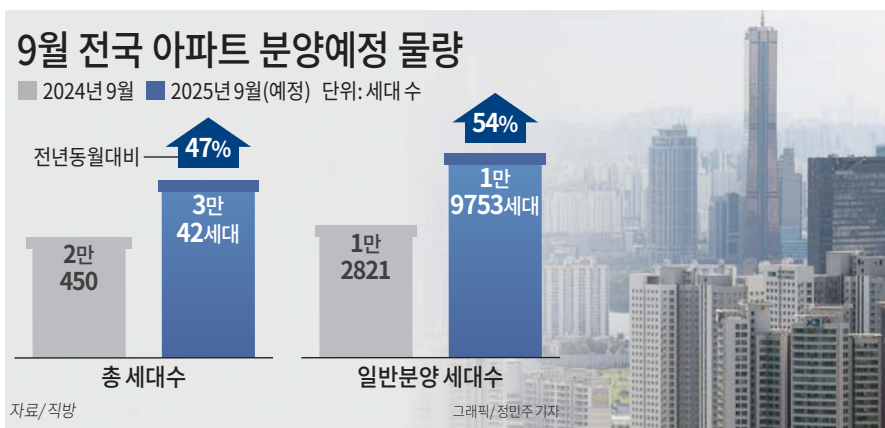
앞서 8월 분양시장에서는 하반기 ‘대어’로 꼽힌 ‘잠실르엘’, ‘디에이치 아텔스타’ 등 주요 단지가 공급돼 실적률이 69%를 기록했다.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 서면 씨미터뉴 등 지방 브랜드 단지들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8032세

대, 지방이 1만2010세대다. 수도권은 경기 1만2375세대, 인천 4472세대, 서울 118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은 부산이 4087세대로 가장 많고 충북(2580세대), 충남(1900세대), 경북(1835세대), 울산(1608세대)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사당3동 지역주택조합)과 중랑구 상봉9-I구역(옛 이마트 상봉점 부지)에 들어서는 ‘상봉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 ‘철산역자이(2045세대)’, 구리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1096세대)’, 안양 ‘자이헤리티온(1716세대)’, 오산 세교 ‘우미린레이크시티(1424세대)’ 등 대단지 물량이 예정됐다. 인천에서는 부평 ‘두산위브&수자인부평더퍼스트(1299세대)’,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1534세대)’ 등이 공급된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1068세대)’, 충남 아산 ‘모종서한이다음노블리스(1079세대)’, 경북 구미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1372세대)’ 등이 있다.

9월 분양시장은 물량 확대와 함께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이어지는 자금 부담이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한정된 공급 속에서 자금 여력,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여부, 가격 메리트 등이 실수요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브랜

드 파워와 입지 경쟁력이 뚜렷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면적·타입별로 청약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가을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이 풍부하더라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선택은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수도권은 자금 조달 여건과 입지 경쟁력, 지방은 면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조건에 따라 청약 성적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SC제일은행 퍼스트정기예금 가입 최고 年2.7%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퍼스트정기예금(6·12개월제)에 가입하는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2.65~2.7%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관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퍼스트 정기예금에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에 한해 6개월제 가입시 최고 2.7%, 12개월제 가입시 최고 2.65%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3000억원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